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전화 (02)523-9752 팩스 (02)766-6025  
http://www.pharmacist.or.kr . E-mail:kpkyp@chol.com

문서번호 건약180913-1  
시행일자 2018. 9. 13.  
담당 강아라 정책사무국장  
수신 각 언론사 기자  
제목 [그약이 알고싶다 4<sup>th</sup>\_ 이미 그녀들은 충분히 아프다]

## [그 약이 알고 싶다 4<sup>th</sup>] 이미 그녀들은 충분히 아프다.

낙태는 뜨거운 이슈다. 그리고 최근 그 한가운데에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인공 중절 전면 거부와 미프진 도입이 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등 61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인공 중절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인하였다. 임신 중절 수술과 미프진 복용은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략 효과는 유사하며(수술 성공률 98%, 미프진 성공률 95~97%) 안전성도 둘 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수술이나 마취 없이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미프진 사용을 선호한다.

한국에 알려진 미프진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 미국에서는 미페프렉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절을 위해서는 미프진 성분인 미페프리스톤과 이후 미소프로스톨이라는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를 복용해야 한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시켜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키며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 촉진제로서 자궁에서 분리된 수정체를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미프진을 이용한 임신중절은 연구 방식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98%까지의 성공률을 보이며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고 임신 9주까지 그 안전성이 확인되었다. 복통이 가장 흔한 부

작용이며 미프진을 허용한 국가들에서는 임신중절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 복용 후 1주~3주 이내에 의료진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WHO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이미 전 세계 약 2,600만명의 여성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여 임신중절을 했으며 핀란드의 경우는 2009년 기준 낙태 여성의 84%가 미프진을 복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녹록치 않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낙태를 시행한 산부인과 의사 대상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발표하면서 산부인과 의사사회에서는 임신중절 전면 거부를 밝힌 상황이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여부 결과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성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임신중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여성의 건강과 인권이다. WHO에서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라는 건강의 정의에 동의한 WHO 가입 국가들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여성이 필요로 하는 임신 중절을 범죄시하고 처벌하는 법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법적으로 임신중절을 막든, 막지 않든,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해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법적 제한은 임신중절을 더 줄이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낙태 시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건강을 해칠 뿐이다. 국내 사정은 좀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사 중인 낙태죄에 대한 위헌을 결정하더라도 미프진 도입은 또 다른 권력들의 싸움터가 되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프진 도입이 ‘더 쉽게’, ‘더 마구잡이로’ 태아의 생명권을 내팽겨 칠 것이라는 고리타분한 논쟁의 장이 되지는 않기를 바란다. 이미 임신중절을 선택한 혹은 선택할 그녀들은 충분히 고민했고, 충분히 아파했고, 충분히 고통 받고 있다. 박카스를 먹듯이 미프진을 가벼운 마음으로 먹을 그녀들이 과연 존재하겠는가? 이제 이미 충분히 아픈 그녀들을 위한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

2018년 9월 13일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 \* 참고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미프진을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여성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 복용 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부정확한 인터넷 정보가 많아 대표적인 두 가지 약제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첨부한다. 주의사항은 거의 동일하므로 두 약제 내용 모두 참고해야 한다.

## □ 미프진 (Mifegyne®)

### 1. 복용법

가.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부터 49일 전까지

- ①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200mg 3정 복용(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45분 내에 토하면 다시 복용해야 함)
- ②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36~48시간 이내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400mg을 구강 복용하거나 gemeprost 1mg 질내 삽입.

나.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부터 50일~63일 사이

- ① 미페프리스톤 200mg 3정 복용(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45분 내에 토하면 다시 복용해야 함)
- ②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36~48시간 내에 gemeprost 1mg 질내 삽입

### 2.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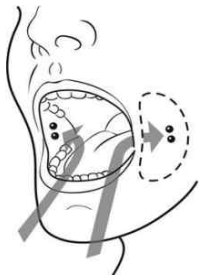
- 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3시간은 편안한 곳에서 쉬어야 함.
- 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몇 시간 내 혹은 수일 내에 수정란 배출됨
-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평균적으로 12일 정도 질 출혈이 있으나 점점 줄어들음
- 약 복용 시 자몽주스,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항진균제), 에리스로마이신(항생제) 금기
- 임신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부터 63일이 지났을 때, 자궁외 임신이 의심될 때에는 사용 금기
- 질 출혈이 있다는 것이 임신중절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약 복용 후 14~21일 내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해야 함.
- 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심한 복통이 있을 수 있음

일반적인 부작용은 구역, 구토, 열/오한, 두통, 설사, 졸음 등

## □ 미페르펙스 (Mifeprex®)

### 1. 복용법

- 임신 70일 이내 중절 시 사용
- 미페프리스톤 200mg 복용 후 24~48시간 이내 미소프로스톨 200mg 4정을 양쪽 볼에 2개씩 30분 동안 머금고 있는 후 나머지를 물로 삼킴



### 2. 주의사항

-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24~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해야 함. 24시간 전 혹은 48시간 이후에 복용 시 효과가 떨어짐
- 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보통 출혈 시작하므로 편안한 장소에서 복용하는 것을 권장
- 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심한 복통이나 위장관 증세가 나타날 수 있음.
- 약 복용 후 7~14일 내에 의료진을 방문하여 임신중절을 확인할 것
- 자궁내 장치(루프)는 미페프리스톤 사용 전 제거해야 함
- 열, 세균혈증, 골반내진 등의 증세를 보이지 않는 심각한 세균성 감염과 패혈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오랫동안 다량의 출혈을 보이는 것은 불완전 중절 등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료진을 방문할 것